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1-02 Vol. 211
January-February 2018



기획공연 「2018 울산시민을 위한 새해맞이 국악큰잔치」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1/02 Vol. 211
2018 / January-February

04 | 신년사

06 | 회관 이모저모

Special Performance

06 | 기획공연 I
2018 울산시민을 위한 새해맞이
(국악큰잔치)

08 | 기획공연 II
뮤지컬 <광화문연가>

Special Exhibition

10 | 기획전시 I
「빛과 희망의 아외조형전」

12 | 기획전시 II
「오색찬란五色燦爛 울산」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8년 1·2월호 / 통권 211호

발행처_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발행인_ 진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Contents

Art & Performance

- 14 | 울산시립교향악단
2018 신년음악회
- 16 | 울산시립합창단
2018 신년음악회
- 18 | 울산시립무용단
新비나리



Art & Story

- 20 | 이탈리아 통신
부온 나탈레
- 23 | 예술을 말하다 I
쵸아키노 로시니10
- 26 | 예술을 말하다 II
함무라비 법전
- 29 | 예술을 말하다 III
뮤지컬 타이타닉
- 33 | 김용진의 Piano Forte
레너드 번스타인
- 36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그리스>



Information

- 39 | 1·2월 공연·전시 가이드
- 43 | 1·2월 공연·전시 일정
- 45 |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 46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 47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며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려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보면, 울산문화예술회관은 개관 22주년을 맞아 대공연장 냉·난방기 교체, 야외공연장 객석보수, 소공연장 공기조화기 교체 등 대대적인 시설개선으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대공연장의 관람의자 교체는 간격을 넓히고 지그재그 식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이전보다 훨씬 넓고 탁 트인 관람시야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품격 있는 문화예술 실현과 시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초청한 마에스트로 시리즈 6회 공연, 해설이 있는 클래식 할 뻔 시리즈 3회 공연, 대형 뮤지컬 5회 공연은 물론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공연을 연중 선보였으며, 광역시 승격 20주년 특별 전시 '미디어 아트 인 울산'과 '관화가 오 운 회고전', '전국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등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공연·전시 추진과 창의적인 시립예술단 운영, 지역예술단체와 시립예술단이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대축제 '2018 울산아트페스티벌', 우리 울산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위한 '울산 청소년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개최는 물론 악극 '갯마을', 창작뮤지컬 '이에 - 그 불멸의 길' 등 울산의 지역·문화·인물 등을 소재로 한 창작 문화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울산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에 두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 나가며,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메카로서 역할을 다하여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 예술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울산문화예술회관장 **전 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 서포터즈 발족



울산문화예술회관은 2017년 12월 20일 오전 11시 2층 회의실에서 울산문화예술회관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18명의 서포터즈가 선발되었으며, 2018년 1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 동안 자신의 SNS와 회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관의 공연·전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서포터즈의 활동 상황은 회관 홈페이지와 문예정보지를 통해 소개될 예정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서포터즈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커뮤니티 > 회관 이모저모 게시판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울산시민을 위한 새해맞이 국악큰잔치

잔치


2018. 1. 18. (목)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장사익 · 남상일 · 이봉근 · 박애리 · 송소희



주최 | 울산광역시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제작 | 문화기획 협찬 | 울산광역시 문화재단 후원
관람시간 | 약 140분 (인터미션포함) 관람료 | 8세 미만 아동 (유) 이상 관람가 티켓가 | V.I.P석 6만원 ·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출연 | 장사익 · 남상일 · 이봉근 · 박애리 · 송소희 · 고정무스케치·에디 · 박유진 · 시유진 Park · 고정무스케치·에디 · 기타장재현 · 베이스장재현 · 해미하리
예매처 | 머릿 | 예술단체예약센터 | 051-250-5000 <http://ucac.usan.go.kr>

무술년, 더욱 풍요롭고 활기찬 울산시민의 행복기원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거리 넘치는 풍성한 잔치상을 펼치고자 합니다.




장사익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

장사익은 가수 보다 소리꾼으로 불린다. 그의 깊고 역센 목소리에는 한국인을 전율케 하는 깊고 진한 감동이 배어 있다. 장사익은 판소리뿐 아니라 오페라·트로트·칸초너·상송·불교의 범패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의 고유한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장사익 스타일'로 승화시킨다. 또한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하여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어트리는 독창적인 예술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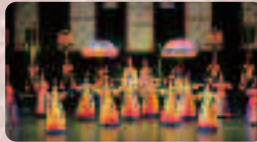
송소희
민요천재

송소희는 우리 국악의 계보를 잇는 소리꾼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민요에 천부적 두각을 드러내어 소녀 명창이라 불렸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호연 명창에게 사사 받으며 경기민요를 완성시켜 나갔다. 송소희의 맑고 높은 목소리는 민요에 최적화되었으며 뛰어난 방울목 실력을 지녔다. 또한 월등한 음감으로 곡의 습득력이 월등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국악인이다.



남상일
국악 대중화에 힘쓰는 국악계 싸이

남상일은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국악인이다. 그는 국악이 극장용 음악으로 박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든 국악이 되길 희망하며 대중과 가까워지려 노력하고 있다. 티비 음악 프로에서 국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남상일 특유의 걸쭉한 입담이 돋보이는 토크예능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



의정부시립무용단

2002년 창단된 의정부시립무용단은 이미숙 단장과 단원 33명이 매년 2회 정기공연을 비롯해 일본·중국·베트남·러시아 등 세계를 무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타악팀 '시공간Play'

우리 전통 타악기로 현대적 사운드를 창조하는 '시공간play'는 전통의 권위에 안주하지 않고 다변화를 꾀하는 창작물로 대중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있다.



박애리
대장금 OST '오나라'의 주인공

박애리는 우리 문화를 전파하는 국악인이다. 그는 한·중·일 성공리에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의 메인 주제가 '오나라'를 통해 우리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파했고 애절한 감정 표현력과 뛰어난 전달력으로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공연예술가인 남편 팝핀현준과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국악관현악단

2015년 창단한 공감국악관현악단은 일상의 국악, 대중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는 국악을 위해 차별화된 연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타 정재일 | 베이스 정영준 | 해금 하고운



이봉근
떠오르는 스타 소리꾼

이봉근은 현재 가장 급부상하는 국악인이다. 그는 국악기와 피아노로 구성된 밴드 앙상블 시나위의 전 멤버로 활동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 전통 음악과 일본 재즈를 융합한 '신한악'의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우리 국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 나갔다. 이봉근은 KBS 2TV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 출연해 2회 우승을 거머쥐는 등 국악의 가치와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

P R O G R A M

1부 오프닝
남상일 | 장타령, 낭만에 대하여, 고장난 벽시계, 민요연곡
박애리 | 썩대머리, 사노라면, 봄날은 간다
남상일 & 박애리 | 사랑가, 해뜰날

Intermission

2부 오프닝
이봉근 | 돌고돌아가는길, 사랑의굴레
이봉근 & 송소희 | 이별이래
송소희 | 한오백년, 배 띄워라
무용단 태평무
장사익 | 상처, 역, 님은 먼 곳에
※ 공연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공연시간 및 출연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뮤지컬 광화문 연기

누가
대리
광화문
네가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
어딘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
가지만
어딘가
정동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누가
대리
광화문
연기

그 시절 우리가 새겨진 이곳

2018. 2. 9 ~ 2. 11.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인재욱 · 이권명 · 차지면 · 이도명 · 김성규(만피니트) · 박강현 · 필림희 · 홍은주 · 권지(임민지) · 유미 · 아하나 · 박성훈 · 김범준 외

그 시절 우리가 새겨진 이곳 2018년, 다시 광화문에 서다!

영원히 기억될 명곡들로 그려낸 '우리'의 이야기

무제곡 광화문연기

세대를 넘어 모두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붉은 노을〉, 〈옛사랑〉...

최이영훈의 명곡으로 피어나는 **감성대작!**



2017, 18년 가장 빛나는 창작진, 최고의 하모니!

〈더 데빌〉, 〈인더하이즈〉, 〈서편제〉

자신만의 분명한 색깔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연출, **이재나**

〈조씨고아〉, 〈베르테르〉, 〈아리랑〉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관객의 심장을 저격하는 극본, **고선웅**

〈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곤 두머로우〉

관객의 마음을 지휘하는 음악감독, **김성수**

누구나 한뼘쯤 생각해 봤을 죽기 전 1분, 추억과 진실한 사랑을 찾는 이야기

2017년, 중년의 명우는 임종을 앞두고 사경을 헤매는 중이다.

이때 명우 앞에 인연을 관찰하는 신 율하가 나타나, 명우의 옛 기억 속으로 여행을 안내한다.

율하가 중년 명우를 처음 데려간 기억 속 장면은 명우가 첫사랑 수아를 처음 만난 1984년 봄 덕수궁 사생대회.

당차고 명품한 수아에게 빈에 사랑을 키워 가던 젊은 명우는

먼저 대학에 진학한 수아의 시위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수아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며 차츰 수아와 멀어지게 된다.

중년 명우는 율하와 함께 자신의 기억 속 장면을 여행하며 젊은 시절의 아쉬움과 후회,

정확하게 일 수 없는 기억 속 반집과 마주하게 되는데...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초호화 라인업! 한국 창작뮤지컬의 지평을 열었던 서울뮤지컬단의 신평파 배우 대가 캐스팅!



송은영우·송재근



송은영우·이건명



율하·하지연



김은영우·하도건



김은영우·김성규



김은영우·박강현

대형 설치조형물과 다채로운 빛의 하모니

빛과 희망의 야외조형전

기간 2017. 12. 13(수) ~ 2018. 1. 31(수)

장소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 일원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에는 희망차고 밝은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뜻을 담아 「빛과 희망의 야외조형전」을 12월 13일부터 1월 31일까지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에게 희망찬 2018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화려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여, 낮에는 리드미컬한 조형적 요소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밤에는 조명장식과 빛의 하모니로 시민들에게 희망찬 한해를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기획하게 되었다.

대형 조형물은 기본 도형이 모티브가 되어 수직, 수평선과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이 조화를 이루어 야외전시장을 가득 채우고 역동적이면서 아름다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높이 20m, 가로, 세로 40m의 대형 조형물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LED와 은하수 조명을 장식하여 연말연시 회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한 분위기로 송구영신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회관 중앙 광장 수목에 LED 스노우풀, 별빛, 눈꽃 조명 등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 준다.

언제 어디서든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멋진 야경 감상과 함께 공연관람과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2018년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



울산예술단체 신년 초대전

오색찬란 五色燦爛 울산

기간 2018. 1. 4.(목) ~ 1. 16.(화), 12일간
장소 제1·2·3·4전시장(전관)





- ① 「축제」 이태열작
- ② 「산업불꽃」 이상일작
- ③ 「하늘을 우러러」 서진길작
- ④ 「화려한 변신 1817 그리고 이달우」 이달우작
- ⑤ 「하나가 된다는 건」 윤은숙작
- ⑥ 「개지위귀」 김영진작
- ⑦ 「유어예」 박석종작
- ⑧ 「새해에도 으랏차차」 이상문작
- ⑨ 「노을속으로」 이재영작
- ⑩ 「열정」 신선례작
- ⑪ 「지난 이야기」 원문수작
- ⑫ 「섬마을」 이창락작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1월 4일 ~ 1월 16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제1·2·3·4전시장 전관에서 울산예술단체 신년 초대전 「오색찬란(五色燦爛) 울산」을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울산지역 작가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울산 전시 예술단체 회원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울산 예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고자 기획되었다.

오색팔중산춘(오색춘)이라는 시청광장의 동백꽃에서 주제를 착안하여 한 그루의 나무에서 다섯 가지 색깔의 꽃이 피는 동백 나무와 같이 문화예술회관과 미술, 사진, 서예, 민미 협회 다섯 개의 단체가 오색빛깔 어울림의 빛을 낼 수 있는 작품으로 전시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미술, 사진, 서예작품 총 410점이 2부로 나뉘어 전시되며, 전시장에서 다양한 장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보기드문 기회가 될 것이다.

진부호 문화예술회관장은 “이번 울산예술단체 신년 초대전은 지역 전시예술의 선도적인 역할수행과 화합의 장을 제공하여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울산예술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전시인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 울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2018. 1.16.(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원

회원 30%, 단체 10만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할인
공연문의: <http://ucac.ulsan.go.kr> 275-5623~6

주최: ▲ 울산광역시 후원: 울산시립예술단

*본 공연은 소극장 제작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2018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하여 울산시립교향악단이 2018 신년음악회를 마련합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담아 울산시립교향악단이 「2018 신년음악회」를 선사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며, 한국의 클래식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임헌정의 지휘로 마련된 이번 신년 음악회는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신년에 대표적으로 연주되는 레퍼토리로 기획되어 시민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와 차이콥스키, 로시니, 바그너 등 다양하면서도 듣기 편한 작품들로 펼쳐지는 경쾌하고 웅장한 선율들이 돋보이는 이번 신년음악회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휘자 임헌정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미국 메네스 음대, 줄리아드 음대 졸업
- 제14회 동아콩쿠르 대상 수상
-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지휘 부문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 부문 수상
- 부천필 말리 교향곡 전국 연주(1999~2003)
- 우경문화예술상 음악 부문 수상
-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길 100인' 선정
- 호암 예술상 수상(2005 부천필)
-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서울음악대상 수상
-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상) 음악 부문 수상(2008)
- 보관문화훈장 수상(2016)
-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역임(1989~2014.1)
- 2014.2~2017.1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역임
- 현,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계관지휘자 (2014. 2~)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지휘전공) 주임교수 (1985~)

NEW YEAR'S CONCERT

PROGRAM

- 요한 슈트라우스 II / 박쥐 서곡 작품362
Johann Strauss II / Overture 'The Bat' op.362
- 요한 슈트라우스 II / '천둥과 번개' 폴카 작품324
Johann Strauss II / Polka 'Thunder And Lightning' op.324
- 요제프 슈트라우스 / '대장간' 폴카 작품269
Josef Strauss / Polka 'Feuerfest' op.269
- 요한 슈트라우스 II / '트리치 트라치' 폴카 작품214
Johann Strauss II / Polka trisch tratsch op.214
- 차이콥스키 / '백조의 호수' 모음곡 작품20a 중 '왈츠'
Tchaikovsky / Swan lake suite op.20 'Waltz'
- 차이콥스키 /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작품71a 중 '꽃의 왈츠'
Tchaikovsky / The Nutcracker (suite) 'Waltz of the Flowers', op.71
- 요한 슈트라우스 II / 봄의 소리 왈츠
Johann Strauss II / Voices of Spring Waltz
- 휴 식 (Intermission)
- 바그너 / 오페라 '로렌그린' 제3막 - 전주곡-
Wagner / Opera 'Lohengrin' : Prelude to Act III
- 프로하스카 / 클라리넷 폴카 <클라리넷 수석 손기영, 차석 이정호>
Prohaska / Clarinet Polka
- 앤더슨 / 나팔수의 휴일 <트럼펫 수석 한만욱, 김경목, 손영진>
Anderson / Bugler's Holiday
- 요한 슈트라우스 II / 사냥폴카 작품373
Johann Strauss II / Polka 'Off to the Hunt' op.373
- 로시니 / '윌리엄 텔' 서곡
Rossini / Overture 'Guillaume Tell'

울산시립합창단 제102회 정기연주회
위대한 합창명작 시리즈 I

2018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지휘 민인기



테너 이원준



베이스 우주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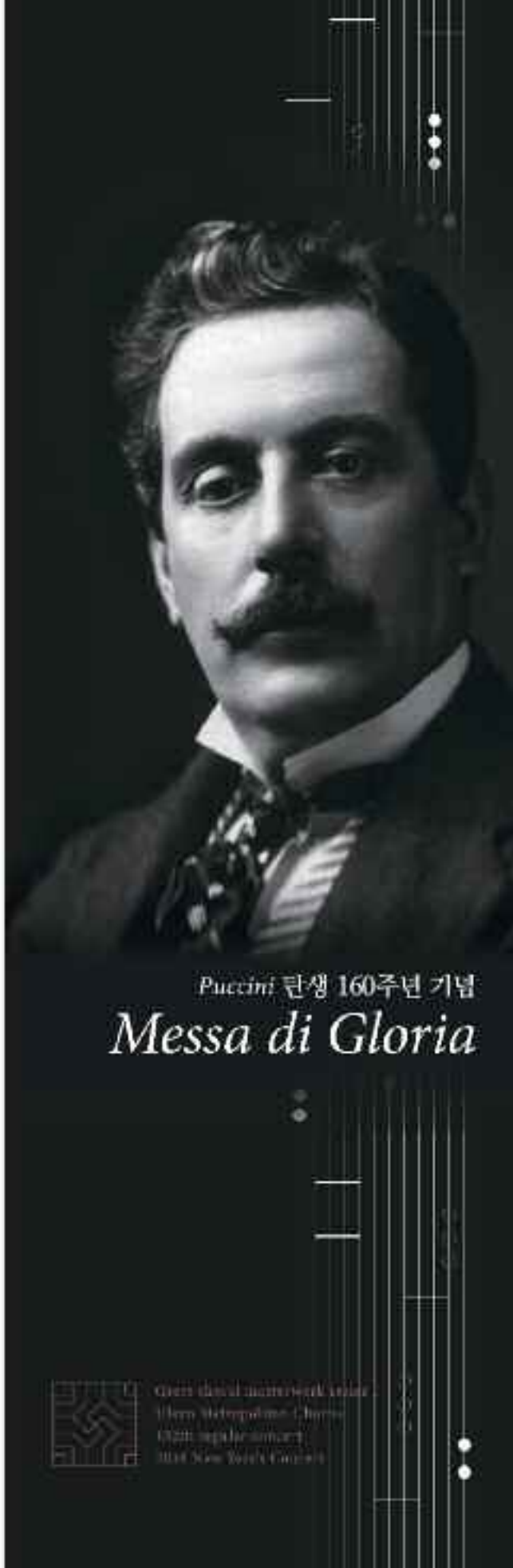


합창 울산시립합창단



관현악 울산시립교향악단

2018. **1. 25.**(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Puccini 탄생 160주년 기념

Messa di Gloria



Choral masterwork series
Ulsan Metropolitan Chamber
Orchestra performs
at New Year's Concert

Messa di Gloria



테너 이원준 (Conductor Eugene Song)

- 한양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Italia Bologna Conservatorio Diploma
- 한국 음악협회 콩쿠르 1위, 동아음악콩쿠르 1위
- 제4회 루치아노 파바로티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 Italia 제23회, 25회 Toti dal Monte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 La Scala 극장을 비롯 전 세계 주요 극장에서 Die Zauberflöte, Così fan tutte, Idomeneo, Il matrimonio segreto, Oedipus Rex, Le Roi David, Yevgeny Onegin, Fidelio, La Traviata, Carmen, La Bohème, L'elisir d'amore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
- 유럽에서 음반 멘델스존 교향곡2번 Lobgesang, 드로르작 Stabat Mater, 하이든 L'isola disabitata, 모차르트 레퀴엠, 국내에서 한국가곡/마음의 노래 외 다수 음반
- 협연 지휘자 - Peter Maag, Daniel Oren, Esa-Pekka Salonen, Gianluigi Gelmetti 등
-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베이스 우주호 (Pianist Peter Ovtcharov)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베네벤토 국립음악원, 페로지 국립음악원 졸업
- 프란체스코 국제콩쿠르 1위 외 6개 콩클 입상
- 로마 국립극장(브란카초)의 <라 트라비아타>와 <팔리아치>로 데뷔
- RA국영방송국, 텔레레 방송 등 초청공연
- 이탈리아 리미니, 시칠리 젤로, 레체 국제페스티벌, 아마카다 베르디축제, 국립오페라단 베르디축제 초청연주
- 줄리아노, 니콜로지, 미켈레, 스틸라, 조르조, 정명훈, 신영옥과 협연
- 이탈리아 토리노, 루마니아 국립, 로마 모차르트, 레체시,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시칠리아, 아마카다, KBS, 코리아심포니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 오텔로, 시몬 보가네그라 외 30여작품 300여회 주역 출연
- 제4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폐막작 차용 주역 출연
- 코리아심포니 초청 독창회 및 5회 독창회
- 베르디레퀴엠, 베토벤 9심포니 독창자
- 사람 하나의 행복, 사모곡 음반 외 솔로 3집 발매
- 현재 상명대학교 외래교수, 한국자원봉사 홍보대사, 한국성악협회 이사

PROGRAM

- | | | |
|-------------------|------|----------------------|
| · Messa di Gloria | · 휴식 | · 축배의 노래 G. Verdi |
| 1. Kyrie | | · 평화를 주소서 Coombes |
| 2. Gloria | | · 희망의 나라로 현재명 |
| 3. Credo | | ·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자 조혜영 |
| 4. Sanctus | | |
| 5. Agnus Dei | | |

일 시 2018. 1. 25.(목) 오후 8시
 지 휘 민인기
 티 켓 V석2만원 R석1만원 S석7천원 A석5천원


장 소 대공연장
 출 연 테너 이원준 베이스 우주호
 관람등급 초등학생 이상 입장가

울산시립무용단

新

비야리

2018. 2. 9.(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입장료 | 전석 1만원
- 입장등급 | 5세 이상 입장가능
- 주 최 |  울산광역시
- 주 관 | 울산시립예술단

新비나리

유명국악인 오정해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만나는 시간,

2018년 울산시립무용단 첫 무대! 新비나리

진주검무의 진수를 보여줄 진주검무예능보유자 유영희·김태연 & 진주검무보존회,
부산 가야금단 최미란 특별출연 더욱 다양하고 수준높은 전통연희의 대향연이 펼쳐집니다.



안무 박정은 음악감독 박상욱 진행 오정해 진주검무예능보유자 유영희 진주검무예능보유자 김태연 진주검무보존회 최미란

우리 춤과 소리의 멋을 전하는 울산시립무용단이 2월 9일(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오정해의 입담 넘치는 진행과 진주검무예능보유자 유영희, 김태연을 비롯한 진주검무보존회의 수준 높은 작품으로 2018년 첫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할 전통연희의 대향연, 『新비나리』를 선사한다.

『新비나리』진행을 맡아 관객과 소통할 국악계 디바 오정해는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 『천년학』 등에서 주역으로 활동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동아방송예술대학 전통연희전공분야에서 인재양성에 힘쓰고 있다. 오정해는 앞서 울산시립무용단 공연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역 관객들에게 재미있는 작품해설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높은 예매율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옛 궁중에서 원형 그대로 이어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의 진수를 보여줄 진주검무예능보유자 유영희, 김태연 명인과 진주검무보존회가 특별출연한다. 진주검무는 전복(戰服)을 입고 양편으로 맞서 추는데 다른 검무들에서 볼 수 없는 방석돌이, 연풍대, 숙은사위, 얇은사위 등 독특한 춤사위와 백동(白銅)으로 만들어진 꺾이지 않는 칼을 손목을 많이 돌려쓰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도, 자진모리와 휘모리로 이어지는 빠른 가락과 다양한 리듬변화가 긴장과 이완을 거듭하면서 한바탕 절정을 이루며 물아(沒我)의 경지에 빠지게 하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부산가야금연주단 최미란 악장의 연주로 감상하고, 남색·홍색·황색·흑색·백색의 복식을 입은 5명의 무용사가 각기 처용의 탈을 쓰고 오방으로 벌려 서서 추는 '처용무', 궁중에서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추었던 '큰태평무', 휘몰아치는 북의 울림이 춤이 되고 음악이 되는 화려하고 웅장한 북의 대향연 '비상' 등 국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작품이 흥을 돋운다.

'비나리'는 원래 남사당패 놀이의 성주풀이 굿에서 곡식과 돈을 상 위에 받아놓고 외는 고사문이나, 그것을 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이후 사람들의 행복을 비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앞날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을 '비나리하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번 울산시립무용단의 『新비나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해 관객들의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무대로 마련되었다.

- PROGRAM**
- 시나위 합주
 - 처용무
 - 진주검무
 - 국악가요
 - 큰태평무
 - 화무
 - 가야금산조
 - 비상

Italia 통신

부온 나탈레

Buon Natale



부온 나탈레(Buon Natale)! 이탈리아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다.

성탄절만 공휴일인 한국과 달리 이탈리아에서는 성탄절 시작부터 새해까지 휴가기간을 맞아 학교와 회사 모두 1주에서 2주 가량을 쉰다. 또한 연인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문화보다는 가족과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탈리아에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새해는 연인 또는 친구와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Pallina Albero di Natale





Mercatino di Natale Bolzano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대부분이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와 크리스마스 마켓을 떠올릴 것이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이 더 유명하지만 이탈리아도 북부 유럽에 비겨 뒤지지 않을 만큼 유명하다. 크리스마스 마켓을 이탈리아어로 메르카티노 디 나탈레(Mercatino di Natale)라고 하며 크리스마스 마켓 없이 이탈리아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할 정도로 크고 작은 도시마다 상점들과 길거리, 또한 광장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마켓과 작고 아기자기한 마켓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지방의 크리스마스 마켓들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바로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해 있는 볼짜노(Bolzano)에서 열리는 마켓이다.

볼짜노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Piazza Walther를 비롯한 크고 작은 광장에서 예쁘고 화려한 색상의 수공예품들과 맛있는 로컬 음식들을 판매하는 이태리 북부 최고의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11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볼짜노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는데 많은 타 지역의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지역 주민들은 이 기간을 기념하며 볼짜노 지역 특산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볼짜노와 함께 세계에서 손꼽히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유명한

트렌토(Trento)는 11월 18일부터 1월 6일까지 열린다. Piazza Fiera와 Cesare Battisti 광장에서 멋진 산책을 즐기며 아로마 핫초콜릿 또한 맛볼 수 있다.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있어 쉽게 광장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베로나 근처의 부소렌고(Bussolengo)에는 매년 이탈리아 최대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열리는데 바로 VILLAGGIO DI NATALE FLOVER이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11월, 12월 두 달 동안 크리스마스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데 정말 없는 게 없을 만큼 모두 모여 있는 마켓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모든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이탈리아 최대의 마켓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만들고 성탄절 기간에 불을 켜놓는 예수님 탄생의 순간을 재현해 놓은 구유 장식이 있는데





panettone-artigianale-tradizionale



Pandoro

이것을 프레제페(Presepe)라 한다. 가톨릭이 주 종교인 이탈리아 가정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집집마다 트리 장식을 집안팎에 많이 하는데 이것 외에도 크고 작은 프레제페를 장식해 놓는다. 정말 다양한 느낌의 구유 장식을 하는데 모래랑 이끼들도 없고 전구로 마룻간 안에 조명을 넣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아기 예수, 요셉과 마리아, 어린양, 천사 그리고 동방박사로 이루어지는데 더 크게 만들면 이날을 축복하는 모든 마을 사람들과 마을까지로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다. 또한 빵집에서는 빵으로 초콜릿과자점에서는 초콜릿과 과자로도 만들어 장식을 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은 선물을 사는 곳일 뿐 아니라 지역마다 특색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가족과 친구들, 연인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별히 먹고 마시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이탈리아인들의 크리스마스 요리는 장황하다.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고 있지만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먹을 요리를 주부들은 몇 대째 전해 내려오는 그 집안 고유의 음식으로 며칠씩 때론 몇 주씩 준비한다.

성탄 전야의 만찬에는 생선이 많이 사용하는데 해산물 샐러드나 해물 전체에 이어 참치를 곁들인 스파게티, 해물 리조또 등을 먹고 난 후 장어구이, 연어구이, 송어요리 등을 주로 먹는다. 성탄절 당일에도 만찬은 계속되는데 속을 채운 피자 또는 국물을 나눠 부은 토르텔리니로 시작해 양고기와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

또한 이탈리아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먹는 음식(후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탄절 전통 케이크 빠네토네(Panettone)와 뽀도로(Pandoro)이다.

빠네토네란 Panetto와 크다는 뜻인 접미사 -one 가 붙여져 큰 빵이라는 뜻으로 둥근 지붕 모양의 빵이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주의 밀라노의 전통 크리스마스 빵이었는데 지금은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먹고 있다. 밀라노 소매 빵집 장인들에 의해 각자만의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공장에서도 대량 생산이 된다. 주재료는 밀가루, 설탕, 달걀, 버터로 만들어지는데 속에는 건포도, 설탕에 쟀인 오렌지 껍질, 피스타치오 등이 들어 있다.

뽀도로는 예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한다.

건포도나 과일이 첨가되지 않은 별 모양의 케이크로 빠네토네보다 부드럽고 흰 과우더가 눈처럼 뿌려져 있어 보기도 예쁘다. 보통 이 빠네토네와 뽀도로는 세로로 길게 잘라 한쪽씩 먹는데 뽀도로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가로로 잘라 껌껌이 쌓아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주재료는 밀가루, 버터, 설탕, 달걀, 바닐라 향 등이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주에 있는 베로나의 전통 빵이었으나 이것 또한 현재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먹는 크리스마스 빵이 되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선물로 이 빵들을 주고받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감사와 인사를 나누며 새해를 맞이한다.

글_김진홍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진출처: 메트)

조아키노 로시니 10

‘세빌리아의 이발사 Il barbiere di Siviglia’ (II)

초연

이 오페라 탄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기획제작자 프란체스코 체사리니가 초연을 눈앞에 두고 급사를 하는 등 갖은 곡절을 다 겪으면서 로시니의 신작 오페라는 1816년 2월 20일 로마의 테아트로 아르젠티나에서 초연을 했다. 지금은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초연 당시 오페라 제목은 ‘알마비바 또는 쓸데없는 조치’이었다. 로시니가 초연 당시에는 원작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

로시니가 파이지엘로의 인기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대본을 개정하여 다시 오페라로 만든다는 소문이 돌자 파이지엘로의 골수팬들은 술렁거리고 있었다. 초연일 극장 앞에는 로시니의 신작은 대본도 수정했고 음악도 완전히 다르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지만 극장의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했다. 객석에는 불만에

쌓여 잔뜩 분노한 파이지엘로의 극성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로시니의 처사가 지난 34년간 인기몰이를 하던 파이지엘로의 오페라에 대해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몹시 화가 난 팬들이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당대 최고의 테너 마누엘 가르시아가 알마비바 백작 역을 노래할 때 반주하기로 했던 기타는 조율이 풀려 있어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조율하고자 했지만, 기타 줄 하나가 아예 끊어지는 바람에 객석에서 폭소와 야유가 쏟아졌다. 1막 중반에는 난데없이 고양이 무대 위로 튀어나와 어슬렁거리면서 도저히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무대 장치는 부실해서 쓰러지고 바질리오 역을 맡은 가수는 무대 뒤에서 넘어져 코피를 흘리면서 공연을 하였고 파이지엘로 팬들은 야유와 휘파람 소리까지 내며 비웃고 난리였다.



조아키노 로시니

그러다보니 군중 심리까지 맞물려 공연은 급기야 난장판이 된다. 이날 공연에서 작곡가 로시니는 하프시코드 반주까지 맡아 모든 상황을 보게 된다. 파이지엘로 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음을 내면서 연주를 방해했지만 음악은 들렸고 아름다웠다. 첫날 공연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던 보마르세 원작 희곡의 운명과도 흡사했다. 그럼에도 로시니는 이 오페라의 성공을 확신했다. 로시니의 예측은 정확했다. 두 번째 공연부터는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은 성공'이라는 표현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판권이었다.

시대의 변화

바로 그 해에 파이지엘로가 세상을 떠나고 로시니는 대선배가 죽자마자 두 달 만에 자신의 오페라 이름을 '세빌리아의 이발사'라고 바꾸었다. 차츰 파이지엘로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잊혀져갔고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만이 공연되고 기억되면서 위대한 희극 오페라로 자리매김한다. 이렇게 선배 작곡가의 작품을 후대 작곡가가 다시 수정하여 완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면서 과거의 작품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이탈리아 음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이같은 '세빌리아의 이발사' 성공은 30년 전 비엔나에서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의 초연이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30년전 만 해도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귀족들이 자기들을 골탕 먹이는 이발사의 얘기를 좋아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했다. 이발사인 평민 피가로는 귀족 알마비바와 여주인공 로지나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전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피가로가 사실상 작가의 분신이자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베토벤과 베르디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냈다. 귀족과 평민이 한데 어울리는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지배층에 대한 위트에 넘친 반항 때문이었다. 이 오페라의 부제인 '쓸데없는 조치'는 여주인공 로지나가 음악 교사로 변장한 애인 린도로(알마비바 백작)와 함께 연습하는 작품의 제목으로 알마비바와 로지나의 결합을 방해하려는 바르톨로에 대한 풍자의 의미가 담겨 있다. 바르톨로가 아무리 훼방을 놓으려고 해도 모두 '쓸데없는 조치'이며 알마비바와 로지나는 결국 행복하게 맺어질 것이라는 암시다.

음악적 특징들

파이지엘로는 대체로 보마르세의 희곡에 충실한 대본으로 작곡을 했지만, 로시니는 대본작가 스테르비니와 함께 대본의 많은 부분을 수정했다.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근본 이유는 우아하고 감미로운 멜로디와 반짝이는 위트, 그리고 여기에 밝고 명랑함이 조화를 이루어 이탈리아 오페라 부파의 진수를 보여준 때문이다. 한마디로 음악도 재미있고 스토리도 재미 있다. 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봄날의 미풍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여주인공 로지나와 4명의 남자주인공들은 풍부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연기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극장의 기교가 필요한 로지나의 아리아, 우아한 테너 알마비바의 대단히 세련되면서도 민첩하며 위트에 넘치는 아리아,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이, 새가 지저귀듯이 빠른 패세지를 소화해야 하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진출처: GIOVANNABUZZI "Amati/Bacchiardi)



피가로의 아리아, 익살스러운 부포베이스 바르톨로의 아리아, 부드러운 미풍처럼 속삭이며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마치 대포를 쏘듯 힘찬 포효로 연결되는 돈 바질리오의 아리아, 1막과 2막 피날레에서 솔로, 2중창, 3중창을 거쳐 6중창까지 발전한 선율이 다시 합창과 합류하며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피날레를 이루는 ‘로시니 크레센도’ 장면은 희극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합창의 주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한 피아노시모에서 포르테까지 크레센도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음향을 만들어 낸다. 극중에 알마비바가 매번 등장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여 나오는 것은 보마르세다운 발상이며 이에 로시니의 음악이 아주 적절하게 음악적 위트를 가미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음악 선율만으로는 파이제엘로의 작품이 더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역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시민 정서를 반영한 로시니의 개성적인 인물들이 관객들에게 훨씬 더 큰 웃음을 선사한다.

»» 줄거리 ««

제1막: 젊은 알마비바 백작은 마드리드에서 우연히 마음에 꼭 드는 처녀 로지나를 보고는 그녀와 사귀려고 세빌리아까지 따라 온다. 하지만 로지나에게는 바르톨로라는 나이가 많은 의사 후견인이 있다. 바르톨로는 처녀의 젊음과 재산 양쪽에 다 욕심을 내고 있다. 바르톨로는 로지나와 결혼하려고 로지나가 어떤 남자라도 만나지 못하도록 언제나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 매일 아침 로지나의 창문 아래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백작은 운 좋게도 한때 자신의 하인이었던 피가로를 우연히 만난다. 현재 세빌리아에서 이발사로 가게를 꾸려나가는 피가로는 그의 재치와 입담, 이발 솜씨로 그 동네에서 인기 만점이다. 백작의 SOS를 받은 피가로는 우선 백작과 로지나가 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피가로는 우선 로지나를 만나 어떤 젊은 대학생이 당신을 죽어라고 사모하니 한번 만나 보라고 권한다. 로지나는 면발치에서 그 대학생을 보고 마음이 움직인다. 린도로(백작)는 욕심 많은 후견인의 감시를 피해 로지나를 그 집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 (사진출처: 클라인본 페스티벌)

데리고 나와 데이트하려고, 한 번은 술 취한 군인으로 변장해서 로지나의 집에 들어가지만 로지나에게 접근도 못해보고 바르톨로에게 쫓겨난다.

제2막: 이번에는 백작이 로지나의 음악선생 바질리오 대신 음악 선생으로 변장해 로지나의 집을 찾아가는다. 바르톨로는 수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레슨을 받도록 한다. 그러던 중 로지나는 린도로를 알아보고 좋아한다. 백작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두 사람은 결국 아반도주하기로 모의하는데 이 음모를 바르톨로가 엿듣는다. 바르톨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날 밤으로 당장 로지나와 결혼키로 마음먹고 공중인과 음악선생 바질리오를 불러들인다. 그러나 바질리오는 백작에게 매수되어 바르톨로 대신 백작의 결혼식 중인이 되어 백작과 로지나가 결혼식을 올린다. 뒤늦게 쫓아온 바르톨로가 발을 동동 구를 때 모두들 그의 욕심을 비웃는다. 백작은 바르톨로에게 그동안 로지나의 후견인으로서 수고한데 대한 보답으로 돈을 한 보따리 하사한다.

»» 주요 아리아 ««

- ‘Largo al factotum 나는 마을의 만능일꾼’ (1막, 피가로)
- ‘Una voce poco fa 방금 들린 그 목소리’ (1막, 로지나)
- ‘A un dottor della mia sorte 나 같은 박사를 속이려면’ (1막, 돈 바르톨로)
- ‘Cessa di piu resistere 반항은 이제 그만’ (2막, 알마비바 백작)

글_ 송중건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말은 무척 잔인해 보입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 주라니요.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는 말도 모르냐고 하고 싶네요.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 구절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여 년 전 바빌로니아를 지배했던 함무라비 왕이 세운 법을 모은 것입니다. 오랜 정복 전쟁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전체 지역을 통일한 함무라비 왕은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제국 어디에서도 공평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중요했고,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 해결 방안이 함무라비 법전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는 총 282 개의 조항을 단단한 검은색 현무암 기둥에 새겨, 태양신이자 정의의 신인 사미슈의 신성한 도시인 시파르에 세웠다고 합니다(도판 1). 그리고 이 법전의 복제품을 만들어 왕국 내의 다른 도시의 공공장소에도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었고, 또 심판이 필요할 때면 해당되는 내용을 제국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단단한 돌에 새겼으니, 일상에서 쓰는 진흙판보다 더 안전했겠지요(도판 4).

법전 기둥은 크게 장식과 법조문의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단에 부조로 조각된 두 사람을 먼저 볼까요(도판 2). 얼핏 보면 도관의 오른쪽에 앉은 이가 함무라비 왕일 것 같지만, 왼쪽에서 있는 이가 왕입니다. 그는 지금 오른 손을 드는 존경의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지상 최고 권력자가 그 앞에 서서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이는 아마 신 밖에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는 태양의 신이자 정의의 신 사미슈입니다. 당시 남자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수염도 꾸몄지만, 커다란 원뿔 모양의

머리 장식과 양어깨 위로 솟아 나오는 빛이 신성함을 드러냅니다. 신이 함무라비 왕에게 막대기와 등근 고리를 건네는데 각기 권력과 공정함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왕이 뛰어난 인간이라지만, 인간이기에 지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개인의 판단이기에 모순도 있고, 실수도 할 테지요. 그렇지만 법전의 내용이 신이 내려준 것이라면 사람들은 이를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랐을 테지요. 법전의 서문도 “태양신 사미슈가 이 세상에 빛을 주신 것처럼 백성의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정의를 주노라.”라고 하여 부조 장식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법전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둥의 네 면에 법전의 내용이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쓰이던 설형문자인 아카드어로 기록 되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방식입니다(도판 3). 구성을 보면 재판관 겸 조정자로서의 함무라비의 역할을 칭송하는 서문, 법조항이 나열된 본문, 함무라비의 덕을 찬양하는 결미로 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비〉는 당시 바빌로니아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인류의 보물입니다.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사유재산과 신분, 범죄와 약탈, 사기 등의 사회 문제가 생겨났고, 때로는 국가 간의 전쟁도 일상을 위협했습니다.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약속이 체계화된 것이 법의 시작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사회적 신분은 크게 자유인과



도판 1. 〈함무라비 법전비〉(Stela of the Code of Hammurabi), 기원전 약 1750년경, 현우



도판 3. <함무라비 법전>의 법조문 세부.

자산이 없는 평민, 노예의 세 계층으로 나뉘고, 여성의 권리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 오늘날과 다릅니다. 가령 똑같은 뺨을 때린 죄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자유인이나 평민이라면 벌금을 물지만, 노예가 그랬다면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유명하게 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처벌 원칙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한다.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히는 벌을 내리는 것이지요. ‘대등한 신분의 사람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의 이를 부러뜨린다.’(200조) ‘뼈를 부러뜨리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197조),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면 그 손을 잘라버린다.’(195조) 같은 내용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아반적이기까지 하지요.

하지만 이는 함무라비 법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법전 내용의 대부분은 재산과 가족 관계,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만한 사건 사고의 처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오히려 서문에 나온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못살게 굴지 않도록, 과부와 고아가 굶주리지 않도록, 평민이 관리



도판 4. 함무라비 법전의 서두를 새겨 놓은 진흙판, 기원전 18세기, 파리 루브르 박물관.

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주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감옥이 없었고, 모든 형벌이 즉결 처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지은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이후 더 큰 복수를 당하는 것보다 나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국 어디에서든 처벌이 공평했다는 점도 법의 권위를 더욱 강하게 했을 것입니다.

함무라비 왕이 죽은 뒤 바빌로니아 왕국은 쇠퇴했습니다. 기원전 12년 엘람 왕국의 왕자는 <함무라비 법전>을 이란의 수사로 약탈해 갔고, 20세기 초반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이를 발견하여 프랑스로 가지고 갔습니다. 성문법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300년 정도 더 오래된 수메르의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글_ 황주영

영화와는 또 다른 뮤지컬 타이타닉

뮤지컬 <타이타닉>이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지 20년 만에 국내에서도 첫 출항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영화를 무대로 옮긴 이른바 '무비컬'이라 생각했고, 많은 기사에서도 그렇게 언급됐었죠. 하지만 개막 전 어느 배우를 인터뷰하면 좋을까 캐스팅을 살펴보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연기했던 잭 도슨과 로즈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었거든요, 직접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 <타이타닉>은 영화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내용은 다른 작품이지 뭡니까. 게다가 이 무대가 무척이나 신선하고 파격적입니다.





사진 출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세계 초호화 여객선의 비극적인 침몰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프턴을 출발해 미국 뉴욕을 향해 달리다 닷새 만에 북대서양에 침몰한 초호화 여객선의 이름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 <타이타닉>이 지난 1997년 개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졌죠. 당시 유럽과 미국을 오가는 유일한 수단이 '배'이다 보니, 사람들은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방법을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락하게, 또는 좀 더 호화롭게 말입니다. 그 갈증을 해소한 것이 타이타닉, 획기적인 기술이 대거 도입된 데다 '세계 최대 초호화 여객선'이라는 수식어를 장착한 타이타닉호는 세계의 이목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객선에는 1등실과 2등실 승객들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저렴한 3등실 승객을 위한 숙박시설도 갖춰져 있었는데요. 1등실은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6,500만 원을 지불해야 탈 수 있었던 반면 3등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기회를 얻고 싶었던 이민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길이 268.8미터, 폭 27.7미터, 최대 속도는 시속 42.6킬로미터로 당대 세계 최대 규모였는데요. 건조 당시 설계사는 구명보트 46개와 이중 선체, 방수 격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타이타닉호는 결국 20개의 구명보트만 갖춘 채 항해에 나섰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지나가던 북대서양

지역은 빙산 골목으로 불릴 정도로 널리 퍼져 있는 얼음으로 인해 항해하기 위험한 선로로 알려졌는데요. 속도를 올리던 타이타닉호는 급기야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선체가 7초 동안 빙산에 긁히며 총 6개 구획으로 해수가 들어오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2시간 40분 만에 '지구 상에서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물체'였던 타이타닉호는 수면 아래로 완벽하게 모습을 감췄습니다.

뮤지컬 <타이타닉>의 첫 출항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73년이 지난 1985년 타이타닉호의 선체가 발견됐다는 기사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해저 4000미터에서 두 동강 난 채로 600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영감을 받은 극작가 피터 스톤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은 뮤지컬 <타이타닉>을 함께 구상했고, 1997년 4월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 무대를 열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이 1997년 12월에 개봉했으니, 뮤지컬이 영화보다 7개월 정도 앞서 관객들을 만난 셈입니다. 뮤지컬 <타이타닉>은 그해 토니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지컬상, 베스트 오리지널 스코어상 등 주요 5개 부문을 수상했고, 드라마 데스크



사진 출처 :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어워즈에서 베스트 오케스트레이션도 수상했는데요. 1999년 전미 투어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1개국에서 8개 언어로 공연됐고, 2017년 브로드웨이 초연 20주년을 맞으며 우리나라에도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영화는 물론 여느 뮤지컬과도 다른 뮤지컬 <타이타닉>

뮤지컬 <타이타닉>은 1등실 승객 로즈와 3등실 승객 잭 도슨의 신분을 뛰어넘은 로맨스에 초점을 맞춰 타이타닉 침몰 사건을 다룬 동명의 영화를 무대에 옮긴 작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뮤지컬과도 전혀 다른 형식인데요. 윤공주, 임혜영, 정동화, 조성윤, 송원근, 서경수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없습니다.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여느 작품과 달리 뮤지컬 <타이타닉>은 타이타닉 호에 승선한 모두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거든요. 실제로 당시 타이타닉호에 탄 사람은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2000명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2000여 개의 사연이 있겠죠. 뮤지컬 <타이타닉>은 탑승자 모두의 이야기, 그리고 당시 선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조연, 앙상블 구분 없이 배우들은 많게는 5개의 역할을 소화해 내는

데요. 이를 ‘멀티-롤(Multi-Role)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주연급 배우들이 캐릭터가 확연히 다른 여러 인물을 번갈아 연기하는 모습은 무척 신선한데요. 이번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배우는 정동화 씨입니다. 무선기사, 선상 밴드 지휘자를 필두로 무려 6명의 인물을 연기하는데, 콕채인지 역시 가장 많습니다. 정동화 씨뿐만 아니라 무대 뒤는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유독 합창이 많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가창력 돋보이는 배우들이 함께 선보이는 우렁찬 합창은 뮤지컬 <타이타닉>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또 보통 뮤지컬 공연 때 오케스트라는 무대 아래쪽에 배치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무대 뒤쪽에 오픈돼 있습니다. 당시 선상 밴드가 타이타닉호에 끝까지 남아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무대 디자인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무대 위에 어떻게 구현됐을까요? 일단 전혀 배 모양은 아닙니다. 선실 간 격차를 상징하는 여러 개의 층이 간혹 객석까지 돌출돼 있는데, 배 모양이 아닌데도 배처럼 느껴지는 게 신기합니다. 특히 2막 후반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천장에서 의자나 사람을 매달아 천천히 내려오게 하네요. 뭔가 좀 더 과격적인 장면 연출을 원한 관객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진 출처 : (주)씨엔터테인먼트인코퍼레이티드

소란하고 혼란스러웠던 무대가 일순간 조용해지면서 사람과 사물이 부유하게 만든 모습은 배가 가라앉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장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뮤지컬 <타이타닉>이 주는 감동

뮤지컬 <타이타닉>은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캐릭터와 사연을 담아내다 보니, 1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길고 나열식이라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막에서도 배가 부딪힌 후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모습, 각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말을 맞는지 여전히 나열되고 있죠. 중심인물의 이야기를 깊게 파고든 게 아니라서 마무리도 좀 어색하고요. 하지만 지나치게 남녀 주인공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국내 공연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구성과 색다른 형식에 신선함을 느끼는 관객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뮤지컬 <타이타닉>은 더 큰 울림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순간을 지켜보며 한국 사람이라면 다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깊은 아픔과 맞닿았기 때문일 겁니다. 뒷얘기를 들어보니 공연을 준비하던 배우들도 같은 이유로 연습 때 많이 울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타이타닉호 탑승자 2000여 명 가운데 2/3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명보트가 턱없이 모자랐으니까요. 이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도 대부분 1등실과 2등실 승객이었다고 합니다. 3등실 승객들은 다른 계층의 승객들과 분리되게끔 설계된 벽 때문에 탈출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해요. 원칙을 무시한 설계, 안전 대신 선택한 기록, 위험 경고를 무시한 안일함, 그리고 차별. 관객들은 100년 전 일에서, 10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선원들, 서로 돕고 양보했던 사람들 덕분에 지구상에서 움직이는 물체 중 가장 거대했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는 중에도, 생존자보다는 희생자가 더 많았던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관객들은 작지만 밝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썄요. 굉장히 낯선 구성과 형식의 무대지만, 임팩트 없이 나열되는 이야기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뮤지컬 <타이타닉>의 국내 공연은 순항이 예상되는군요!

글_ 윤하정



탄생 100주년

레너드 번스타인

(1918~1990)

LEONARD BERNSTEIN

1943년 11월 14일 새벽



레너드 번스타인 가족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매니저가 급하게 레너드 번스타인을 찾았다. 이유인즉 상임 지휘자인 브루노 발터가 심한 감기에 걸려 이날 오후 지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갓 두달 전 뉴욕 필 보조지휘자에 임명된 스물다섯살 번스타인이 발터를 대신해 지휘 단상에 오르게 된 것이었다. 뉴욕 타임스는 다음 날 1면 기사를 통해 ‘젊은 조수가 뉴욕 필을 이끌다’란 제목으로 번스타인의 성공적인 데뷔를 세상에 알렸다. 미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의 데뷔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레너드 번스타인 (Leonard Bernstein, 1918-1990), 그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피를 이어 받은 이주민이었다. 살림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은 보편적인 미국인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 감수성이 예민한 번스타인은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못했을 테지만 정신적으로는 안정된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하버드에 진학해서 문학과 철학을 먼저 전공하지만 결국은 음악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번스타인은 프리츠 라이너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커티스 음악원에 입학하게 된다. 본격적인 음악공부를 하면서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카라얀과 유럽에서 본격적인 격전을 펼치게 된다.

카라얀 vs 번스타인

베를린 필의 카라얀과 뉴욕 필의 번스타인. 이름만 비교해 봐도 빅뱅이 일어날 것 같은 압박감이 든다. 20세기 최고의 라이벌인 동시에 고전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선구자

이기도 했으며, 방대한 양의 레코드를 남김으로써 클래식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두 거장의 연주 프로그램은 극과 극이었다. 독일 출신 카라얀은 베토벤이나 반 유대 주의자였던 바그너 연주에 몰두 한 반면, 번스타인은 미국계 유대인으로 멘델스존이나 말러를 주로 연주하였다.



번스타인과 카라얀

남성적인 카리스마의 대표격인 카라얀에 비해 번스타인은 매우 섬세하고 배려심이 돋보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카라얀의 독단적인 오케스트라 운영에 불만을 품은 한 단원은 카라얀을 칼로 찌르기도 했고, 일류가 아니면 단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도 유명했다. 그에 반해 번스타인은 유머로 단원들의 화합을 이루어 냈으며, 뉴욕 필을 그만 둘 때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연주를 계속 하는 등 고전음악의 대중화에 온 정성을 쏟았다. TV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번스타인이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해설까지 했던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까지 했다.



번스타인 청소년 음악회

1979년 6월 29일과 30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뉴욕 필의 내한 공연이 있었다. 연주회에서 음악을 감상하던 음악 평론가 K씨는 “번스타인이 10년 동안 뉴욕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로 있을 때 무엇보다도 정신을 더 부르짚어 기술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그의 드높은 덕성으로 이런 결함을 극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번 연주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느꼈는데, 번스타인은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갖고 있었다. 이 한 지휘자의 드높은 음악 정신과 인간 정신에 모든 단원들이 영적으로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듯 기막힌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음악은 이름지을 수 없는 것들을 이름짓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전달한다.



번스타인

모든 다방면에서 뛰어났던 지휘자이자 작곡가, 그리고 피아니스트, 음악 교육가, 음악 저술가였던 번스타인. 그는 음악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을까? 20세기 이후 번스타인처럼 성공한 지휘자인 동시에 작곡가로 인정받은 음악인은 드물다. 바쁜 지휘활동 중에도 상당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교향곡 3곡, 연가곡집 2권, 단편 가곡들과 합창곡, 뮤지컬 7편, 영화음악과 발레음악까지 장르도 다양하다. 번스타인 작품의 주제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유대적인 것, 미국적인 것, 그리고 현실 참여적인 것.

번스타인은 평생 유대인임을 의식하며 살았으며, 스스로 ‘음악의 랍비’라고 생각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구약성서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교향곡을 작곡했으며, 유대교 예배의식 때 부르는 찬송가 등 유대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들이 많다. 미국적인 음악을 지향하며 뮤지컬에도 관심을 보인



Herbert von Karajan, Dimitri Mitropoulos et Leonard Bernstein a Salzbourg en 1959

번스타인은 유색인종인 청소년 갱들의 일탈적인 비극을 그린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작곡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 작품은 라틴 리듬과 재즈적 상상력을 동원했으며, 블루스 리듬으로 비극을 암시하는 등 도시적인 미국풍의 뮤지컬을 탄생시켰다.

번스타인은 음악으로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특히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루스벨트의 복지 정책과 케네디의 동서 화해 정책에 찬성한 반면, 레이건과 조지 H. 부시의 패권주의 정책에는 반대했으며, 인종 차별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시대 정신을 음악에 담고자 평생 노력했던 작곡가이자 지휘자 번스타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언제나 대중을 배려하고 이해하고자 했던 그의 음악 인생을 통해 음악가로서 가져야 할 정신과 신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2018년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뜨거운 행복이 차고도 넘치길 기원합니다.

울산에서 볼 날을 기대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_김용진

LEONARD
BERNSTEIN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제9화

요즘 애들 큰 일 났다.

뮤지컬 그리스 (Grease)

선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혹은 다른 많은 기회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 큰 일 났다...”

심지어 작년에 입학한 선배가 신입생을 맞이하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제 연구실로 쫓르르 달려와서 이야기 합니다.

“교수님, 요즘 애들 장난 아니예요...”

자신과 불과 몇 개월 차이 안이는 후배를 ‘요즘 애들’이라 칭하면서 헐뜯습니다. 듣다못해 제가 “야 너흰 더 심했어!” 라고 타박하면 여지없이 대답합니다.

“아니예요. 저희는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요즘 애들 진짜 개념 없어요!”

해마다 어른들은 이야기 합니다.

“말세야... 요즘 애들 참 문제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 말 대로면 세상은 벌써 망했어야 하는데 세상은 또 돌고 돌아가며 그렇게 욕먹던 요즘 애들이 그 후대 아이들을 보며 헛바퀴 돌듯 이야기 합니다.

“말세야...”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 ‘요즘 애들’ 관련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 인지? 저 자신도 1990년대 20대를 맞이한 사람으로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가

“신세대 이놈들 아주 엉망이야. 요즘 애들 큰일이야” 신세대라는 단어... 기억 하시나요? 1990년 20대를 지나오신 분들께는 반가운 단어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먹던 신세대들이 불과 2~3년후 X세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애들...”

고대 수메르 인들이나 이집트 문자들 중에도 이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대 차이는 돌고 돌며 부닥치고 싸우고 개선 되어 가며 문명이 발전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뮤지컬계에도 이 요즘 애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작품이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들이 겪는 반항과 일탈, 갈등과 상징, 조금 더 심각한 임신과 패싸움 등 문제 될 만한 모든 이야기를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록 음악과 함께 그려낸 뮤지컬 ‘그리스 (Grease)’ 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이라면 ‘요즘 애들’에서 그리스를 다룰 것이라는 것을 눈치 채셨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에서도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한국에서 청소년 극단이 새로 창단되면 대부분 창단 공연으로 올리는 작품이 '그리스'입니다. 그만큼 요즘 애들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작품이 과연 요즘 애들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작품일까요? 작품의 태생이... 1972년 인데요? 소위말해 기성세대 중에서도 "꼰대"(요즘 애들은 이 단어도 안 쓴다고 하네요.)라고 아이들이 말하는 올드한 작품인데요? 게다가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1972년에 만들어 졌지만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입니다. 작품에 나오는 최고의 아이돌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1935-1977)'입니다. 그런데도 '요즘 애들'이야기 맞습니까? 그리스 초연 배우들은 지금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아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 작품인데 2017년 아이들이 이 공연을 이해하고 자신들을 대표 할 수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을까요?

혼란스러워 지실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신나는 요즘 애들 뮤지컬 그리스가 1950년대 이야기라니...

다 아는 이야기

다 알고 있지만 혼란스러운 이야기라 하는 게 맞겠지요. 네, 맞습니다. 1972년 초연된 작품입니다. 1942년생 작곡가 짐 제이콥스와 1935년생 작가 워렌 캐시가 1972년에 자신들이 지내온 10대를 추억하며 엘비스와 록큰롤을 이야기 합니다. 당시의 충격적인 청소년 문화(문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였던 조직적인 모임(쉽게 말해 청소년 조폭)이나 임신, 학업에 대한 반항, 왕따 등등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공연을 만들어 초연 되었을 때 뮤지컬계에서는 모두 심각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1957년)도 요즘 애들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 졌지만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원작으로 뮤지컬계의 빅4(아서 로렌츠, 레너드 번스타인, 스테픈 손다임, 제롬 로빈슨)이 만든 정통의 명작으로 품격 있는 문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좀 다릅니다. 거칠고 품위 없고 직설적

이고 뭐... 요즘 애들스럽습니다. 1972년 기준으로 과격입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제목입니다. 그리스... 맘마미아처럼 낭만적인 지중해의 나라 그리스(Greece)가 아니라 포마드나무스같은 머리 기름 그리스(Grease)입니다. 뭐 그 정도는 다 아시지요? 그럼 이젠 어떻습니까? 그리스는 머리 기름이 원조가 아니라 자동차 윤활제 기름 구리스라는건 아십니까? 그래서 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막 몰기 시작한 청소년들이 한 차에 올라타고 다니면서 깡패 짓하고 다니는 어린 조폭의 명칭이 그리서스(Greasers)였다는 것, 그리고 이 뮤지컬에 등장하는 유명한 불량서를 이름인 티버드(T-birds)가 원래 초연 때는 그리서스파였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뮤지컬 매니아입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

록큰롤

뮤지컬의 발전은 시대 문예사조 전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 혹은 기계나 전자의 발전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마이크라는 장비가 만들어지면서 뮤지컬에는 신문명이 등장했고 그 덕분에 전자악기들이 무대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이라는 다소 품격 있는 문화에 당시 모든 기성의 문화를 저항했던 전자악기와 록 음악은 큰 괴리감이 있었고 어쩌면 기존의 브로드웨이 문화를 뒤집는 파격적인 실험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에 본격화된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 문화의 일환으로 연극에서는 실험극(Experimental Theatre), 뮤지컬에서는 록 뮤지컬(Rock musical)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세대를 대표하던 문화 표현방식으로는 이 변화하는 세대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저항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950년대 엘비스에서 1960년대 비틀즈를 거쳐 1970년대를 휩쓸던 록 음악(앤 롤이 빠진)은 젊음과 저항, 그리고 열정을 대변했습니다.

그런 엘비스나 비틀즈도 음악으로 보면 이제 모두 올드 클래식 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올드클래식 팝씨디 전집을 보면 대부분 엘비스와 비틀즈입니다. 저항과 새로움, 그리고 청춘의 상징이었던 음악이 올드클래식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네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기성세대) 청춘 때 좀.. 놀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은 어떠십니까? 20대에 모차르트와 바하에 심취하셨습니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서태지는 어떤가요? 혹은 HOT는요? 요즘 애들 표현으로 구리다(올드하다는 은어입니다)고 하는 아저씨들 노래들이 우리 때도 그랬나요? 나름 우리도 당시엔 첨단 이었고 신세대였으며 충격과 과격을 선도하던 반항아 아니었나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용기 없던 기성에 돌을 던져 맞서고 기성세대 몰락을 맨 몸 던져 부르짖던, 정의를 주장하던 패기 넘치던 신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입에 '요즘 애들'이라는 단어를 달고 삽니다.

결국 저도 기성이 되고 요즘 애들이 저항해야 할 구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그리스

구린 세대의 그리스 시절 회상기

다시 작품 이야기로 돌아가서 뮤지컬 그리스의 장수 비결을 저는 1972년에 만든 1950년대 이야기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작품의 첫 도입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요즘 공연되고 있는 버전에서는 삭제된 경우도 많은데 오리지널 버전의 시작은 엄숙한 교가와 함께 중년의 남자가 학교 홈커밍 데이(동문 모임의 날)에 옛 학교 강당에서 모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그 무섭던 선생님은 백발이 되었고 까불던 친구는 사장이 되고 뭐 이런 현재의 이야기에서 과거를 추억합니다. 우리 그뻘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음악이 바뀌고 중년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정장을 벗어 던지고 그때 입던 가죽 재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성기였던 그때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뮤지컬 그리스입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은 요즘 애들이 노래하는 요즘 애들의 청춘이 아니라 옛날 애들이 노래하는 자신의 요즘 애들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서 기성세대까지 누구나 이 작품을 사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리즈시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뮤지컬 그리스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요즘 애들'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큰일 날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애들'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안변하고 있는 '기성세대' 아닐까요?

만약 요즘 애들과 소통이 안 된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요즘 애들'이었습니다.

뮤지컬 '그리스'처럼 말입니다.



Performances 1·2월 공연가이드

2018 The 최현우 ASK&ANSWER

공연정보 1. 6.(토) 15:00/17:00 대공연장
1. 7.(일) 13:00/17:00
공연주최 으뜸기획
입 장 료 R석:77,000원 / S석:55,000원

어린이 뮤지컬 또각또각 피노키오

공연정보 1. 6.(토) 11:00/14:00/16:00 소공연장
1. 7.(일) 11:00/14:00
공연주최 극단 서울도깨비
입 장 료 V석:20,000원
공연개요 핵가족으로 개인주의에 물들기 쉬운 아이들에게 공연을 통해 꿈과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및 서로 배려해 나감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공연

영동발랄 공순이 드레곤

공연정보 1. 13.(토) 11:00/14:00/16:30 대공연장
1. 14.(일) 11:00/14:00
공연주최 지에스컬처
입 장 료 R석:55,000원/S석:44,000원
공연개요 남녀노소 인기있는 캐릭터를 각색하여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공연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공연정보 1. 17.(수) 10:15/11:20 소공연장
1. 18.(목) 10:15/11:20
공연주최 희망극단
입 장 료 전석 6,000원
공연개요 공주를 죽이고자 하는 마녀는 독사과를 먹고 사과를 먹은 공주는 깊은 잠에 빠지는데...

<시크릿쥬쥬> 오리지널 - 댄스파티

공연정보 1. 20.(토) 11:00/14:00/16:00 대공연장
1. 21.(일) 11:00/14:00
공연주최 jcn 울산중앙방송
입 장 료 R석:50,000원/S석:40,000원

2018 가족체험공연 버블쇼

공연정보 1. 20.(토) 11:00/14:00/16:00 소공연장
1. 21.(일) 13:00/15:00
공연주최 극단 아트윈
입 장 료 전석 12,000원
공연개요 캐릭터와 함께 체험하는 버블쇼 공연

창작뮤지컬 <파랑새극공대>

공연정보 1. 25.(목) 1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님비곰비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원작 동화를 바탕으로 한 어린이 뮤지컬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공연정보 1. 27.(토) 11:00/14:00/16:00 소공연장
1. 28.(일) 11:00/14:00
공연주최 온누리
입 장 료 V석:30,000원
공연개요 엄마의 고마움과 행복한 가정의 필요조건을 배울 수 있는 가족뮤지컬 공연

다이나모 코어

공연정보 1. 27.(토) 11:00/14:00/16:30 대공연장
1. 28.(일) 11:00/14:00
공연주최 jcn 울산중앙방송
입 장 료 R석:60,000원/S석:40,000원
공연개요 국내 최고의 제작진이 만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고의 로봇이 무대 위에 등장하여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액션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보여주는 액션 뮤지컬



Performances

1·2월 공연가이드

CLA & C. BASS DUO 연주회

공연정보 1. 30.(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CLA & C. BASS 앙상블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라리넷과 더블베이스 듀오 연주회 공연

책먹는 여우

공연정보 2. 3.(토) 11:00/14:00/16:00 소공연장
 2. 4.(일) 11:00/14:00
공연주최 V석:25,000원
공연개요 책을 소재로 베스트셀러를 무대 위 뮤지컬로 제작하여 공연하는 어린이 베스트셀러 뮤지컬 '책먹는 여우'

이미자 콘서트

공연정보 2. 3.(토) 14:00/17: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주)밝은누리
입 장 료 V석:99,000원 / R석:88,000원 / S석:77,000원
공연개요 가수 이미자의 명곡들로 이루어진 콘서트

팬텀싱어 2

공연정보 2. 4.(일) 17: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유앤아이 커뮤니케이션
입 장 료 V석:90,000원 / R석:70,000원 / S석:50,000원
공연개요 팬텀싱어 본선 출연진들의 갈라 콘서트

제16기 GOOD NEWS CORPS FESTIVAL

공연정보 2. 20.(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사)국제청소년연합 울산지부
입 장 료 R석:30,000원

울산중구청소년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2. 20.(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중구청소년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추억의 만화영화 및 피아노, 첼로 협연 등 공연

2018 겨울 음악페스티벌

공연정보 2. 24.(토) 15:30 소공연장
공연주최 한국피아노지도자협회
입 장 료 무료

CAY COMPANY 19TH CONCERT

공연정보 2. 25.(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SO 엔터테인먼트
입 장 료 V석:15,000원
공연개요 매년 울산으로 중심으로 카이 컴퍼니에서 주최하는 스트릿 댄스 문화 발전을 위한 콘서트

Exhibitions

1·2월 전시가이드



제9회 우보 배성근 서예전

전시기간 1. 18. ~ 1. 23.(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배성근
전시내용 금강바라밀경, 동다송 등 건전한 내용의 서예작품 40여점 전시

제6회 태화루 아카데미 회원전

전시기간 1. 18. ~ 1. 23.(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태화루아카데미
전시내용 문화 예술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태화루누각의 현대적 활용을 고민하고 시민이 공감할수 있는 내용의 작품으로 12명 회원의 1년간의 작품 활동사진 40여점 전시

제1회 다담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1. 18. ~ 1. 23.(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다담사진동호회
전시내용 렌즈를 통해 맺혀진 다양한 형상을 예술적 시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사진 50여점 전시

제13회 울산수목회 회원전

전시기간 1. 19. ~ 1. 21.(3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수목회
전시내용 자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축소시켜 만든 것으로 작품 대부분 30~40년간 배양한 작품, 분재 50여점 전시

도재수 사진전

전시기간 1. 25. ~ 1.30.(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도재수
전시내용 연꽃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작품 50여점 전시

제6회 율리시스 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1. 25. ~ 1. 30.(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율리시스사진동호회
전시내용 삶의 희로애락을 회원 20명의 작가 시선으로 표현한 사진 작품 50여점 전시

제1회 울산연변회 회원전

전시기간 2. 1. ~ 2. 6.(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연변회
전시내용 한글, 한문, 문인화, 전각 등 서예 작품 70여점 전시

제4회 울산대평생교육원 사진반전

전시기간 2. 1. ~ 2. 6.(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 평생교육원
전시내용 울산대학교 평생교육원 창작 사진반 15명이 바라보는 다양한 삶의 모습과 풍경을 담은 사진 작품 90여점 전시

제3회 송석곤 사진전

전시기간 2. 8. ~ 2. 13.(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송석곤
전시내용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또 다른 시각, 수직에서의 탐의 모습을 담은 사진 108점 전시



Exhibitions

1·2월 전시가이드

제17회 물보라사진동호회 회원전

전시기간 2. 8. ~ 2. 13.(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물보라사진동호회
전시내용 지난 1년간의 회원들 각자의 활동한 사진작품 60점 전시

제1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2. 21. ~ 2. 26.(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프로사진협회
전시내용 일반적 풍경사진이 아닌 빛이양과 패턴을 조절하여 인간의 감정인 희로애락을 표현 한 사진 60여점 전시

제1회 손묘년 사진전

전시기간 2. 21. ~ 2. 26.(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손묘년
전시내용 체 게바라 혁명 사회주의 시간이 멈춘 나라인 쿠비에 사는 사람들을 통해 가난하지만 낙천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담은 사진 40여점 전시

제2회 울산대 평생교육원 사진예술 중급반전

전시기간 2. 21. ~ 2. 26.(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 평생교육원
전시내용 14명의 회원들의 1년간의 사진작품 50점 전시

카라준 기행 8인전

전시기간 2. 21. ~ 2. 26.(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8인회
전시내용 중국의 오지 신장, 위구르 지역 천산산맥 여행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담은 사진 50점 전시

제38회 한국영상동인회 회원전

전시기간 2. 28. ~ 3. 5.(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한국영상동인회
전시내용 전국 10개 지부의 전국단위 전시 행사로서 울산의 문화관광 및 생태 도시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삼고 회원의 역량강화 작품 120점 전시

제1회 엄미애 포슬린아트 개인전

전시기간 2. 28. ~ 3. 5.(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엄미애
전시내용 장미를 주제로 화병, 접수, 액자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모든 도자기 류에 작품성을 더한 장식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한 작품 50여점 전시

제1회 장은영 개인전

전시기간 2. 28. ~ 3. 5.(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장은영
전시내용 울산태화강 십리대숲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와 빛을 소재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촬영한 사진 40점 전시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1 | 2 | 3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이미지 콘서트 (14:00/17:00) 수 재밌는 야무 (11:00/14:00/16:00) |
| 4 | 5 | 6 | 7 | 8 | 9 | 1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팬텀싱어 2 (17:30) 수 재밌는 야무 (11:00/14:00)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뮤지컬 광화문연가 (19:30) 수 울산시립무용단 "새 비나라" (2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뮤지컬 광화문연가 (14:00/18:3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뮤지컬 광화문연가 (14:00/18:30) | | | | |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제16기 GOOD NEWS CORPS FESTIVAL (19:30) 수 울산중구청소년연극센터라 재회 정기 연주회 (19: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푸틴(9:30)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2018 겨울 음악페스티벌 (15:30) |
| 25 | 26 | 27 | 28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 GAY COMPANY 19TH CONCERT (17:00) | | | | | | |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 ▶ 2018 The 최현우 ASK&ANSWER (13:00/17:00) ▶ 어린이 뮤지컬 토끼판과 피노키오 (11:00/14:00) | | | | | | ▶ 2018 The 최현우 ASK&ANSWER (15:00/17:00) ▶ 어린이 뮤지컬 토끼판과 피노키오 (11:00/14:00/16:00)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양동범발 불수이 드래곤 (11:00/14:00) | | ▶ 울산시립교향악단 2018 신년음악회(20:00) | ▶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0:15/11:20) | ▶ 2018 울산시민을 위한 새해맞이 국악콘서트(19:30) ▶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0:15/11:20) | | ▶ (신크림주주) 오리지널 - 맨스파티 (11:00/14:00/16:00) ▶ 2018가족체험공연 바블쇼 (11:00/14:00/16:0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 (신크림주주) 오리지널 - 맨스파티 (11:00/14:00) ▶ 2018가족체험공연 바블쇼 (13:00/15:00) | | | | ▶ 울산시립교향악단 2018신년음악회(20:00) ▶ 창작뮤지컬 <대왕새특공대> (10:00) | | ▶ 대이노 쿠퍼 (11:00/14:00/16:30) ▶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11:00/14:00/16:00) |
| 28 | 29 | 30 | 31 | | | |
| ▶ 대이노 쿠퍼 (11:00/14:00) ▶ 가족뮤지컬 앤서니브라운의 돼지책 (11:00/14:00) | | ▶ CLA & C. BASS DUO 연주회 (19:30) | | | | |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 2 | 3 | 4 1 2 3 4 오색장반묘色繪圖 울산 ~1. 16.(화)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1 제9회 우보 배성근 시예전 ~1. 23.(화) 3 제13회 울산수목회 회원전 ~1. 21.(일) 2 제6회 태항루 07계데이 회원전 ~1. 23.(화) 4 제1회 다담사진동호회 회원전 ~1. 23.(화)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1 도재수 사진전 ~1. 30.(화) 4 제6회 물리시스 사진동호회 회원전 ~1. 30.(화) | 26 | 27 |
| 28 | 29 | 30 | 31 | | | |

진시일정

① 제1전시장 ② 제2전시장 ③ 제3전시장 ④ 제4전시장 ⑤ 갤러리룸 ⑥ 이의전시장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 | | 1 | 2 | 3 |
| | | | | ① 제1회 울산연변회 회원전 ~2.6.(화) ④ 제4회 울산대 평생교육원 사진반전 ~2.6.(화) | | |
| 4 | 5 | 6 | 7 | 8 | 9 | 10 |
| | | | | ① 제3회 송석근 사진전 ~2.13.(화) ④ 제17회 물보라사진동호회 회원전 ~2.13.(화) | |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 | | | | |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 | ① 제1회 울산프로사진협회 회원전 ~2.26.(월) ② 제1회 순모녀 사진전 ~2.26.(월) ③ 제2회 울산대 평생교육원 사진매출 증진반전 ~2.26.(월) ④ 카린준 기행 8인전 ~2.26.(월) | | |
| 25 | 26 | 27 | 28 | | | |
| | | | | ① 제18회 한국영상동인회 회원전 ~3.5.(월) ③ 제1회 엠디에 포슬리아트 개인전 ~3.5.(월) ④ 제1회 장은영 개인전 ~3.5.(월) | | |
| 31 | | | | | | |

*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대예술관



스미스소니언 사진전 - 경이로운 혹은 흥미로운

- 일 시 : 2017. 11. 24.(금) ~ 2018. 3. 4.(일)
- 장 소 : 미술관
- 관 람 료 : 성인 9,000원, 중·고등학생 이하 7,000원
- 개 요 :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 '스미스소니언'의 세계 최초 해외사진전

북구문화예술회관



북구청춘극장 『부산행』

- 일 시 : 1. 10.(수) 14: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람 료 : 무료



무료가족영화상영

『아기 배달부 스톡크』

- 일 시 : 1. 31.(수) 19: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람 료 : 무료



2018 신년음악회

「오케스트라 with 차지연, 민우혁」

- 일 시 : 2. 1.(목) 19:30
- 관 람 료 : 10,000원
- 공연개요 : 오케스트라와 뮤지컬 배우 차지연, 민우혁 등이 함께 하는 신년 음악회



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 226-8242


롯데호텔 울산 · 롯데시티호텔 울산



이용금액 15~5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60-4300


메가박스(울산점)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 | 1544-0070


밀레(달동점)



정상가의 10% 할인 (용품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126
문의 | 052-260-0022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전 메뉴 10%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청 맞은편
문의 | 052-267-1736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회관 앞(남측)
문의 | 052-272-8279


THE ALLEY COFFEE(엘리커피)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신정로 33번길 30
문의 | 010-8348-4800

솜터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회관 전시동 1층
문의 | 052-274-4393


소풍가



이용금액 5%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신정동 극동스티클레스 1층 상가
문의 | 052-275-3579


모리샤브



이용금액 10% 할인
(중복 할인 불가)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 변영로 250번길 9 세이브존 7층
문의 | 052-260-9150

신라스테이



이용금액 60~7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01-9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가입 방법

- | 회원기간 | 1년, 3년, 5년, 10년
- | 회원종류 |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 구분 | 가입기준 | 연회비 | | | | 혜택인원 |
|-------|-------------------|--------------|--------------|--------------|--------------|------|
| | | 1년 | 3년 | 5년 | 10년 | |
| 일반회원 | 만 19세 이상 | 20,000원 | 50,000원 | 80,000원 | 150,000원 | 2명 |
| 청소년회원 |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 10,000원 | 25,000원 | 40,000원 | 75,000원 | 1명 |
| 가족회원 | 한가족 | 40,000원 | 100,000원 | 160,000원 | 300,000원 | 4명 |
| 단체회원 |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 10,000원 (1인) | 25,000원 (1인) | 40,000원 (1인) | 75,000원 (1인) | 가입인원 |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유료회원 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 · 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시 사용가능

문화예술회관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울산시립무용단

2018 타타타



2018.3.23.(금) 20: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